세상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는 관리인이라는 것만 아시라

☞ 19면에서 계속

때로는 약사가 되시고 관세음이 되시고 아촉이 되시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고 칠성이 되고 지장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이렇게 많은, 그, 용신 지신까지 이렇게 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한마음으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시게 됐느냐. 이거를 한 번 따져 보세요.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음파가 가다가도 벌써 그냥 자기한테로 파고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응신이 나쁘게 나갔기 때문에 그 응신이 신장으로서 다가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좀 더 활발하고 좀 의기양양하게 사실 의향이 있다면, 그리고 몸들도 건강하게, 안팎을 건강하게 가지고 사시려면 오만과 자만, 아상 이런 거는, 나라는 존재,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예 집어내 버려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애들이 아, 지금 장관이 왔는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쪽박같이 그냥 많이 모여 있는데. "아, 백일기도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장관이 따로 있고 평민이 따로 있고 거지가 따로 있느냐. 시간 돼서 들어오시게 해라." 그랬죠. 아니, 중이 뭐 그렇게 목이 말라서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하하, 무슨 권세를 얻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뭣하노라고 써 붙였습니까? 왜 마음을 컴컴하게 해서 항상 컴컴하게 살게 합니까?

질문자2(여) 스님, 이 친구분이 연세가 두 살 높은 선배이신데 지금 병으로 누워 계시면서 '하, 나는 죽을 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병이 깨끗이 낫게 좀 안 되겠습니까, 스님.

큰스님 허허, 대신 밥 먹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서어서…, 연세가 몇이신진 몰라도요.

질문자2(여) 79살입니다.

큰스님 그러면 옷 벗을 때도 됐습니다 그려. (대중 웃음) 난 어떤 땐 그럽니다. 연세 물어봐서 80이 넘었다고 그러면 "아이, 이제 가실 때도 됐는데, 그 자손들 속 썩이시네." 허허허,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손들도 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또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고통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 어떤 때는 정말 진정 고쳐 드릴 마음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의사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내 주는 데에 아주 100%가 달라집니다. 우리 이 스님네들이 마음을 내 주는 것도 아주 100%가 달라집니다. 이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얕은 산은 빛을 못 봐서 그렇지, 하하하, 응달이 져서. 만약에 높은 산이 그냥 응달이 지게 이럭하고 있지 않으면 얕은 산이 얕은 산이 아닐 텐데 그렇게 돼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그저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하하. 또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고통은 안 받으시고, 고통스럽게는 안 가시게 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질문자3(남)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책을 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덕이라든가 선을 베풀었을 때에 다시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장사꾼이지 덕이나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 참된 덕이고 또 선이며, 또 어느 때에 보면 무슨 역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것에 의문이 갑니다. 과연 스님께서도 주역을 인정을 하고 계시고 또 사주, 명리학 쪽 뭐, 그런 학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큰스님 난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어떠한 물건이 와서 파산을 시킨다 이렇게 한다면 파산을 못 하게 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후년에는, 후년 후후년에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한다 합시다. 그런다면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자 모두가.

그리고 또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것도 어저께 내가 얘기드린 거죠. "자식들한테 조건 있이 사랑합니까?" 하고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와 부처님이 조건 없이 응해 주시는 자비, 그것하고 다르지 않다고요. 그게 진짜 무주상 보시라고, 이름해서 그것도. 부모가 자식 기를 때 무슨 '무주상 보시다' 이러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뒤를 두고, 뭐, 지금 모든 사람이 웬만하면 다 합니다. 꼭 조건을 붙이고 합니다. 자식을 기를 때도 '너는 잘돼라. 잘되는 게 내 소원이다.' 하,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하하하.

그런데 우린 안 그렇습니다. 조건을 붙여 놓으면 더 잘되려야 잘될 수도 없고 더 못되려야 못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계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계를 지어 놓지 마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그 역학이다 뭐다 하는 것도, 옛날에도 "예언자는 소인이로다."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죠. 이 세상이 공해서 돌아가는데 이거를 딱 잡아 놓고 '어느 해에는 이렇게 되고 어느 해에는 이렇게 된다' 이걸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또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요렇게 저렇게 쓸모 있게 놨는데 딴 사람이 들어와 보니깐 자기 마음에 맞지 않거든. 또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언자는 소인이로다." 이런 겁니다. 역학이 주로 그런 게 많지요. 그렇죠?

질문자3(남) 글쎄, 역학인도 아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명(命)을 알아야 군자니라." 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과연 그 명이 어떠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명을 알아야 된다는 말인지, 또….

큰스님 이, 운명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어요. 인연의 법칙이죠, 예. 그걸 거추장스럽게 운명을 거기다 붙여서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도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고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평등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직원은 직원대로 있고 사장은 사장대로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못 벌어먹고 살고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못 벌어먹고 살고 이러니 평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직원은 직원이고 사장은 사장이다 이겁니다. 하하하.

> 조건을 붙여 놓으면 더 잘되려야 잘될 수도 없고
> 더 못되려야 못될 수도 없습니다.
> 거기서, 한계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 그러니까 아예 한계를 지어 놓지 마시고
>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질문자4(남) 인간이 살자면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거처할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선한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악한 의지를 갖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해도 또 뜻대로 잘 안 풀립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욕심의 한계는 어디까지며, 선한 의지로 어떤 일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욕심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큰스님 어이구 참. 애들하고 집이 없는데 어떻게 집 걱정을 안 해요? 아이, 참내. 세상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는 관리인이라는 것만 아시라니까. 그 주인의 시자일 뿐이고.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나, 돈을 갖지 말라나, 집을 갖지 말라나. 그 말만 해도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악하게 살지 마라." 이런 것은 악이 별다른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마는 자녀들하고도 악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이래도요. 공부를 잘 못하거나. 이거 한국에선 더합니다.

부모가 그냥 공부 공부 공부, 아주 상상에 빠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공부 하지 마라." 공부에 진저리가 나서 들어오면 "어디서 배고프지 않게 뭘 먹었느냐? 피곤하지 않으냐? 배고프면 뭘 좀 먹고 피곤한데 좀 쉬어라." 이러고 이 마음속에다 맡겨 놓아라. '쟤 공부 좀 열심히 잘하게끔, 마음잡아서 잘하게끔 당신밖에는 해결 못 해.'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거죽으로 말은 부드럽게 해 줘라 이런 소립니다. 그래야 이득이 있고 공덕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 말로다가 그냥 다르르르 해 버리고 그러면, 냉랭하면 눈치 봤다가 그냥 또 달아나가요. 그러니 점점점점 속이 썩고 이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이 별난 악이 아니라, 그저 남한테 무조건 잘,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나한테…. 이 공을 쳐 보세요. 공을 딱 칠 때는 공이 나한테 돌아오지 절대로 그 벽에 딱 파묻히는 게 없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걸리지 마시고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인제는 내가 관리인만 되겠다. 그저 마음의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고, 집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또 이 집 없다는 생각에서 이 업식들도 다 알고 내 주인공도 알고 있으니까 어느 때 생겨도 생기겠지.'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와야지 집이 강제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질문자5(남) 저는 안양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불법밖에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쪽으로는 세속적 욕망 속에서,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큰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일체 만법, 일체 모든 과학이나 천체물리학 또는 철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다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이 만사가 다 한마음으로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심을 배우는 거고 그 핵심에 의해서 가지가지 나가는 건, 여러분이 그거는 알아서 이것만 딱 쥐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건 저절로 생깁니다. 자기 마음먹는 대로 저절로 생겨요. 원 핵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좀, 뭡니까? 다람쥐가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 많이 오셨다 가셨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잡은 그 자리에서, 핵심 속에서 다 과목이 나갑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과목이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질문자5(남) 감사합니다.

